

하느님의 사랑 속에서 (...) 우리 모두는 작지만 강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과 백성이지만  
약함을 돌보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복음의 기쁨 216 항)

축성봉헌 생활의 해에, 구원으로 우리를 이끌기 위해 인간적 나약함을 취하신 우리 하느님을 관상하고 맞아들이 은총을 구하십시오. 우리는 희망으로 미래를 끌어안고 그분과의 만남 안에서 현재를 살기 위해, 모든 약함을 돌보며 과거에 대한 "감사의 기억" 안에서 그분의 성탄을 기쁨으로 살도록 기원합니다.

이로써 성부의 부드러움과 사랑을 모든 이가 알고 맞아들이길 바랍니다.

기쁜 성탄과 축성봉헌 생활의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Sr Marta Finotelli  
sjbp 총원장과 총원의 자매들 드림